



방어적 이윤 추구를 위한 건설안전관리

An Efficient Management of Safety in the Construction

金 慶 鎭*
Kim, Kyung Jin

1. 서 언

수도권 신도시 및 주택 200만호 건설과 경부 고속철도, 영종도 신국제 공항 건설 등 경제발전 에 따른 SOC 확충사업으로 건설 수요는 급격히 팽창하였으며, 건설공사도 대형화 하는 추세에 있다. 그에 따라 건설자재와 기능인력 부족 현상을 야기하였고, 공사기간이 부족한 여건하에 기술과 경험이 부족한 건설 업체들이 대형공사에 대거 참여하므로써 건설공사의 전반적인 부실화로 인한 건설 재해의 증가를 초래하게 되었다. 특히 신자재, 신공법 등이 충분한 검토와 연구가 결여된 상태로 건설 현장에 진입 적용되므로써 대형 건설 사고로 발전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게 되었다.

더욱이 최근에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 등 일련의 대형 건설재해는 안전의 개념을 기 완공된 시설물의 유지·안전까지 포함하는 당연한 의미로 바꾸어 놓았으며, 지속되는 부실공사와 그에 따른 대형 건설 재해는 건설업에 대한 사회의 전반적인 불신을 가져왔다.

이러한 부실 공사 및 건설 안전 사고의 발생은 일시적 또는 일부 공사에 한정된 현상이 아니며, 건설업 전반에 걸쳐 체질화될 상태에까지 이르고 있는 실정인 바, 이러한 건설업의 체질 개선과 WTO 비준에 따른 건설시장 개방을 앞

두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정보는 부실공사 예방 및 건설 재해 예방을 위한 건설 안전 관리 방안으로 건설 기술 관리법을 개정하여 100억원 이상의 건설 공사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시설물 안전관리법을 특별법으로 제정하여 국가 중요 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의 근거를 마련하여 1995년 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하자기간의 연장, 책임감리제 확대 및 벌칙을 강화하여 건설경영인은 물론 건설기술자에서 대한 의식의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2. 건설안전관리와 이윤 추구

건설산업 경인은 건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이윤 추구를 위하여 적합한 품질 보장과 저가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가능한한 빠르면 소기의 목적물을 완성하려고 할 것이며, 이는 당연한 사항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3가지 요소는 서로 비례하여 상호보완적인 기능이 아닌, 역 기능적인 요소이므로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려고 할 경우 반드시 문제점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건설산업은 다른 일반산업과는 달리 종합적인 산업으로서 노출된 자연조건(천후, 기상)은 물론 불확실한 지형, 지질조건(지하굴착이나 수중작업 등) 및 고공의 위치(고층B/D, 교량 공사 등)에서 이동하며 각종 작업공정에 따라 사람과

*建設安全技術士, 財團法人 韓國建設安全技術院院長

기계가 혼재되어 생산활동(건설공사 시공)을 진행하게 되며, 이러한 작업과정 과정에서 품질관리, 노무관리, 자재 및 장비관리, 공정관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하므로 타산업에 비하여 생산관리가 복잡하고, 위험하며, 관리조건이 갖은 변경을 필요로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건설공사에서의 이윤추구를 위하여는 품질관리 노무관리, 자재 및 장비의 관리 및 공정관리 등이 총체적으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며 반드시 공정관리의 근간 위에서 성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과정을 일반적으로 건설관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각각의 관리에는 공정관리를 저해하는 위험요소, 즉 안전사고(품질저하, 근로자 상해 자재수급 곤란, 장비의 고장, 공사비 투자지연 등)의 우려가 항상 잠재되어 있으므로 안전장치를 마련하여야 함은 물론, 철저하게 감시되고 통제되어야 하며 이를 건설안전관리라고 하는바, 건설관리-건설안전관리이며, 결국 건설공사의 이윤 추구는 건설안전관리의 바탕위에서만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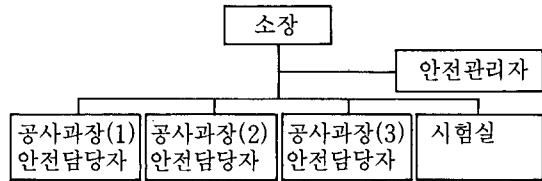
3. 건설안전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와 같이 건설공사의 이윤 추구가 성실하고 완벽한 건설안전관리의 바탕위에 이루어져야 함에도 우리나라의 건설경영은 값싼 노동력 및 불법,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용 전제로한 구시대적인 수주경쟁에만 집착하여 각종 부조리가 만연되어 온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며, 건설안전관리를 공사현장 근로자의 안전으로만 국한하여 인식하는 잘못된 인식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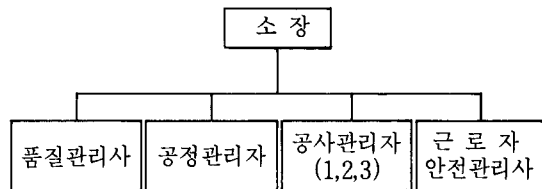
따라서, 건설안전관리에 대한 우선적인 의식이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는바, 첫째로 현장관리조직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여 근로자 안전관리 업무의 책임을 명확히하고, 업무의 간소화를 기

하도록 하여야 한다.

※ **현 재**



※ **개선(안)**



※위와 같이 개선(안)하여 현장소장이 건설관리(건설안전관리)의 총괄책임을 갖도록하고 각각의 관리자들의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함은 물론 대등한 권한을 갖고 업무를 수행토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근로자 안전과 관련하여 인식되고 있는 가설물도 공사 목적물의 시공과 관련되어 기술적인 사항과 일반적인 관리 사항을 고려하여 재조정하므로서 공사 현장 업무의 간소화는 물론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법적 사항들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건설 공사는 각종 공사 종류, 현장조건, 공사 시기, 공법, 자재들의 각종여건과 공종별로 무수한 위험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치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건설안전관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감시와 통제가 원활히 이행되도록하고, 관리기법을 창안개선하여 이윤추구를 방법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건설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 기능공, 일반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엄격한 근무수칙을 준수하여 건설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록 함은 물론 관리자들은 각 개인에 대한 관리가 건설안전관리에 직결되어 있음을 인식시켜야 하며 특히 하위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포상 제도를 분명히하고 직업에 대한 긍지를 갖고 건설공사 시공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건설 기술자는 전문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투철한 장인정신으로 건설공사 시공에 임하여, 불명예스러운 지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건설 경영인도 이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또한, 건설공사 원도급자는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을 탈피하여, 동반자 입장에서 하도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문 건설업의 성장을 도모하여, 건설한 건설산업이 정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결 언

건설 경영의 이윤 추구는 결국 건설안전관리에 따른 방어적 이윤 추구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인식아래 경영인, 기술자의 자주적인 건설업 경영혁신과 기술향상 노력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나, 건설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건설업의 보호와 국가경제 발전에 중추적 노력을 담당할 기간산업으로서 육성을 위하여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와 산·학·연·관리 공동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